

새 사람을 입으라(엡4:17-24)

복음이 그냥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모든 현상도 발전하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어진다.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뜻이다. 순간순간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진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누리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우리 인생에 계속 보여주시고 더 큰 전환점으로 바뀌는 것은 틀림없고 조건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그리스도의 3직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다. 성경전체를 요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3직을 고백하는 것을 지속하면 믿음과 영적상태가 계속 바뀌게되고 인생이 모든 저주에서 나온다. 완전 증인이 된다. 오래 걸릴 경우는 고쳐야 할 것이 많아서 그렇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게되면 100년, 1000년의 응답 작품인생 되니 그리스도 3직으로 고백을 계속 하면 깊어진다. 세월 지나면 진짜 고백이되고 입으로만 하던 것이 진짜가되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만 답이니 계속 하시라. 성경에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의 예가 많이 기록되어졌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전부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이다. 우리 모두의 인생과 세상 모든 답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다른 것이 없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생각해 보고 결심을 하시라. 나도 그리스도의 3직으로 내 인생 전체를 뒤집겠다. 결심하시라. 언약으로 잡고 살면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 전부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능력과 증거를 자신의 현장에서 계속 볼 수 있다 언제부터 시작, 어떻게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결국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의미이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고 찬양했다. 무식하게 3직을 고백을 하고 더 진행을 하면 진짜로 인생 역전된다. 말로만 듣는 것 이아니고 100년, 1000년의 응답이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고 이유, 소망이 된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무식하게 3직을 고백하라.

1.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다. 그의 모든 의로운 행동을 말한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진리이다. 여기 말고는 진리가 없다. 결국 그리스도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7절에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함을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방인은 우상을 숭배한다. 허망한 행동 육신적인 네 피림 사상으로 산다.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18절에 그렇게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

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셨다. 19절에는 그렇게 하면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어 방탕에 빠진다고 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했다. 우상숭배를 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 그리된다. 20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26절에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은 옛날에 많이 기억한 말씀이다.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 28절 도둑질 하는 사람 그만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고 당연히 해야 한다.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버려라. 라고 하셨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삶속에 계속 살아있어야 할 말씀이다. 복음의 목적은 율법이고 율법은 초등학문인데 복음 있는데 율법이 없고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살리고 완성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복음 안에 밖에 없다. 주님이 오신 이유도 이것이라고 하셨다. 그것이 마5:17-18에 나온다. 사도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도들도 성경을 많이 썼는데 이정도로 상세하게 말한 사도는 없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악을 다 버려야 한다. 잘 안된다. 그리해야 한다. 세상에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바울도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겠으나 이런 말을 할 정도는 된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양심적으로 어느정도 이정도로 된 사람이어야지, 사도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답은 항상 복음이다. 다른데에서는 이런 힘을 이런 삶을 살만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은 없다 오직 복음을 가졌고 누리기 때문이다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영권을 주신다. 무식하게 3직을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더 주시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복음을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핵심인 3직을 고백을 계속 하면 살아난다.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더 영적인 사람 영권의 사람이된다. 우리가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

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게된다. 완전한 것은 쉽지 않으나 안되는 것은 영적문제다. 육신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안된다.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못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자꾸 변화하고 발전이 된다. 그 능력고 권세로 사람이 바뀌어 간다. 사람을 바꿀수 있는 능력은 복음뿐이다. 말과 교육은 절대로 끝까지 못간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 방해하기에 그렇다. 영적인힘을 얻으면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바울은 당연히 24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2. 미리 알고 가는 인생

복음 가진 사람 언약가진 사람은 미래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누리기에 24의 사람의 사도바울의 삶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달랐을 것이다. 딱 보면 다르지 않겠는가? 사도들중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복음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조금더 정확하게 정리하면 바울의 노력으로 여기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는 권세의 누림이 달랐을 것이다. 아마 그정도의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당연히 그 정도로 하나님앞에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진짜 시대적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개인의 관한것만이 아니고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때 이후로 전세계에 일어난 기독교 문화를 생각해보라 사도바울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계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꾸 바꾸어 가신다. 하나님은 복음이에는 기준, 이유, 목표가 없다. 어느정도의 복음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생전체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다. 아마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가는 이유는 말씀은 절대 중단이 없기에 그렇다. 나중에 바울은 깊은 기도중에 3층천에 갔다 왔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뭐지 라는 생각도 든다. 처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첫번째 반응이 이런 것이다. 조금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이유로 바뀐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권세가 되고 언약이 된다. 이 언약이 되고나면 더 세월이 흐르면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된다. 그 세월이 복음, 언약안에서 지나가면 이것이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든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미래가 보인다 나는 미래를 안다는 소리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은 그게 아니다. 이유는 확신이 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증거들을 봤기에 확신이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를 가고있는 것을 알고 자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는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단순한 언약정도가 아니고 자기 미래에 대한 중요한 확신이 들었기에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자리를 잡으니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확

시과 언약을 가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 풍조나 사람의 말이나 그때 일어나는 상황속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끝을 알고 가는 것이다. 마24:14절에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끝을 보는 것이다. 언약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끝으로 잡고 산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살게 된다. 바울만 그런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 전부 다 그랬을 것이다. 모세를 생각해보라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꺾혀있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한마디가 수많은 사건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광야를 가면서 일어났던 사건속에서도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어제 237훈련에도 말씀했는데 확인해보라 이것이 정말 시대적인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시대적인 증거를 주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렇다. 시작중에 시작이다. 사도바울도 250년 만에 열매가 나왔다. 우리는 이제20-30년 지나갔다. 지나온 세월속에 증거도 귀하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다. 절대적 증거는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과 맞는가 절대적인 증거의 기준이다. 속지 말라 증거가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있는데 증거가 없다면 하나도 없어도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이다. 진짜 멀리 보고 확신을 딱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속에서 이렇게 살았다 사도바울도 지금 말한 모든 것에 상당히 가깝게 살고 지키며 살았다. 요셉도그렇지 않겠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확신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그런 일들을 견딜 수있겠는가 전부 다 그렇다 다윗, 다니엘도 그렇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언약은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다. 성도 여러분도 진짜 이 언약이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언약을 잡은 자는 전부 이렇게 된다. 우리 모두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모든 행동과 자세도 지킬 수 있는 영권을 가지게 된다. 분을 내어도 조하를 짓지 말라고 하였다. 화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그리고 해지기전에 다 버리라고 했다. 해지기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이다. 분이 나는 것은 전부 내 중심이다. 내가 누구에게서 공격을 받았기에 분이 나지,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 언약을 진짜 잡고 무식하게 3직을 고백을 하면 결국100년 의응답이 되는 답이 하나이다. 이거 외에는 확실한게 없다. 당연히 100년의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라면 1000년의 응답을 받는다 인생이 작품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것에 완전증인이 된다. 누구에게 무슨일이 있어도 오직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진짜 언약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